

지역 소식통

부안소방서, 여름철  
낙뢰사고 주의 당부

부안소방서(서장 박현)는 매년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낙뢰의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지난 2022년 전북지역에 발생한 낙뢰는 총 1,446회로 집계 이 중 6월 579회, 7월 59회, 8월 617회로 3개월간 발생한 낙뢰가 전체의 약 87%(1,255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시·군별 횡수로 군산 197건, 부안 176건, 김제 118건 순으로 낙뢰가 발생했다. 특히 국민행동요령으로 △낙뢰 예보시 건물 안 지하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같은 긴 물건은 몸에서 멀리하기 △평지에서 몸을 낮게 하고 물기가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 △정전부압벽 위나 키 큰 나무 밑에 위험하므로 신속히 낮은 자세로 이동해야 한다

번개가 친 후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후 30분 정도 안전한 장소에서 더 기다린 뒤에 움직인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 7월 22일 개장

도심 속 물놀이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이하 물놀이장)'이 오는 7월 22일 본격 개장해 8월 20일까지 운영된다. 물놀이장은 정읍 시내를 가로지르는 도심 속 생태하천인 정읍천을 활용 조성된 시설이다. 정읍고등학교 앞 시가지 정동교 교량 아래 위치한 물놀이장은 3860㎡의 면적에 어린이 풀장 2곳, 인공폭포와 안마용 폭포수 등을 갖추고 있다. 물에는 워터슬라이드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개장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용료는 무료다. 다만,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우선으로 하천 수위가 증가 수질이 탁해지면 운영이 일시 중지될 수 있다. 시는 물놀이지역 수질조사와 관리지침에 의거해 전복보존환경연구원에 사전 수질검사를 완료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지텍, 고창군에 투자 결정

## 투자협약 체결... 고창신활력산업단지 '활력'

반도체 제조용 원료 등을 생산하는 지텍이 고창군에 투자를 결정했다.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군청 2층 회의실에서 지텍(대표 김하준)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지텍 김하준 대표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고창군 투자기업인 지텍은 경기도 화성시에 본사를 두고 있고, 통신소재형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다.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 1만평 규모로 올 하반기부터 생산설비 150억원 투자

를 시작으로 3년간 총 300억원 규모를 투자할 예정이다. 100여명의 고용인원 창출이 기대된다. 군은 이번 지텍과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고창신활력산업단지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창군은 민선8기 1년간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지원단을 발족해 전라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나갔고, 투자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에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결정한 지텍에 감사드립니다"며 "군에서도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 첨단ISG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감사드립니다"며 "군에서도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 첨단ISG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경영혁신 일자리창출공헌대상서 대상 수상

## 일자리창출 위한 조직개편 · 청년 일자리 창출 공헌 등 성과 인정받아

대한민국 경영혁신 일자리창출공헌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한국노동경제연구원, (재)국제전문인력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경영혁신 일자리창출공헌대상에서 정읍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조직위는 일자리창출 확산을 위해 각 방면에서 공헌한 공인·기관·단체·기업·개인 등을 발굴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시상식은 27일 서울 청담리베라호텔에서 열렸다. 정읍시는 지역 내 일자리창출을 위한 일자리정책추진단, 일자리정책과 등 과감한 조직개편을 비롯해 취업준거센터 운영으로 다양한 취업활동 지원, 내실 있는 청년일자리 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조성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특히 SK네슬리스와 손잡고 추진하고 있는 '정읍형 로컬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과 안전성평가연구원



전북분소와 협약을 통한 청년발전기금 활용 상상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기업유치 시 '지역인재 채용 쿠폰제' 요청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8일에는 구직자에게는 취업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기업에게는 지역 내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박람회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아울러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공공일자리사업도 활발히 추진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돕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2023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 사업' 공모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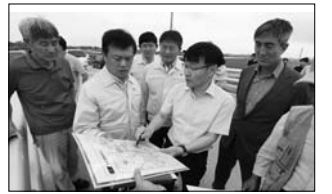
고창군이 전라북도 시·군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 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촘촘한 안전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해 "재난위험 분석 및 대응모델" 분야에 국비 22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 관

심도와 행정수요가 높은 △정보공개 청구데이터 분석모델 △재난위험 분석 및 대응모델 △공공의료서비스 취약지 분석 3개 분야로 추진됐다. 고창군 재난위험 분석 및 대응모델 정립 사업은 기존 인명피해 우려지역 대피 계획 자료, 하천정보, 기상청 강수량 정보 등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고창군은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들과 연계 분석을 통해 관련 계획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행정 업무 처리 기반을 일부 마련했다. 앞으로도 군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데이터분석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이학수 정읍시장, 수해지역 현장방문 · 복구 지시

정읍에 연이은 내린 폭우로 수해가 발생해 정읍시가 복구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9시 20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 28일 오전 2시 20분에는 호우경보로 격상돼 평균 146.8mm의 비가 내렸다. 고부면에는 총 188.5mm의 비가 내렸고, 영원면 181.5mm 덕천면·이평면이 168.5mm로 뒤이었다. 이로 인해 산사면 사실제 터널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가 통제됐다. 또한 일부 상가와 비닐하우스, 논·밭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총 14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이학수 시장은 28일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이평면 칠성교 등 수해지역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살펴보고 신속한 복구를 지시했다. 또 관계공무원들에게 아직 보고되지



많은 피해상황을 파악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시했다. 이학수 시장은 "지금은 비가 소강상태지만 장마기간인 만큼 언제 또 집중호우가 내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피해 복구와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우려지역, 재해 우려시설물 등을 점검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상습침수지역 점검, 하천배수문과 도로 하수구 등을 정비해 수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 심덕섭 고창군수, 홍덕면 갈곡천 등 피해 현장 방문

심덕섭 고창군수는 28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홍덕면 갈곡천 현장을 방문해 주민을 위로하고, 농경지 침수 지역을 점검했다. 고창군에는 27일부터 28일 아침까지 평균 136.6mm, 최고 178mm의 많은 비가 내렸다. 심 군수는 이날 아침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홍덕면 갈곡천 주변 비 침수 지역 현장을 찾아 상황을 보고받고 복구과정을 점검했다. 이번엔 내린 집중호우로 9시 현재 고창군의 피해현황은 농경지 침수 299ha로 홍덕면 갈곡천 주변 농경지 361a, 해리면 광승리와 동회리 주변 177ha, 심원면 50ha, 기타 36ha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에 앞서 고창군은 기상특보상황 문자발송과 군민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외출자제와 시설물 피해 대비 안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전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금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조사는 읍면과 실과소 합동으로 실시하고, 주택 주변 붕괴우려지역과 아파트 우수역류우려 지역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예방 복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어써 가뭄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나 농경지를 포함한 관련 시설물과 현장 점검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군, 2023 세계잼버리 여행후기 이벤트 진행

부안군은 2023 새만금 제2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맞아 부안군을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잼버리 여행후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잼버리 여행후기 이벤트는 7월부터 8월 중 부안 또는 잼버리 행사장을 방문한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 또는 단체가 부안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내에 여행후기를 작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초등학생을 동반한 사자를 필수로 첨부, 초등학생이 직접 그린 그림, 직

접 쓴 시 등을 첨부하면 가나점을 부여한다. 9월 중 심사를 통해 총 47명에게 숙박권 부안사랑 상품권 등 부안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부안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세계잼버리와 함께 부안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며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부안이 글로벌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